

- △서울 동부 = 파파지기, 남양종이컵
- △서울 서부 = 현일산업, 동방물산
- △서울 남부 = 세우산업, 예일기법
- △인천 = 나나실업, 신원산업
- △수원 = 현우산업
- △안양 = 한국지기
- △충청 = 반도산업, 한밭지기
- △의정부 = 만물산업
- △경기 광주 = 세진인쇄지기
- △호남 = (주)무등
- △대구 경북 = 삼보물산, 대한지기
- △부산 경남 = 성우산업, 대한산업, 대운산업

고부가제품 개발 잇따라

삼호, 특수 PE필름 양산

플라스틱필름 생산업체인 삼호산업(대표 정연복)이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포장재를 개발했다.

그동안 PE 및 PP 등 범용 플라스틱필름을 생산해 온 이 회사는 최근 평활도가 우수하고 두께가 균일한 고급포장재인 LLDPE필름을 개발, 생산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양 표면이 다른 소재로 만들어져 내충격 밀폐성이 우수, 세제, 샴푸, 한약포장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를 위해 10억원을 투자, 경기도 양주공장에 압출기 3대를 도입했다.

또 소각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특수 PE필름도 개발, 생산에 나서고 있다.

이 제품은 표면이 잘 긁히지 않고 열과 충격에 강해 전자레인저, 냉장고, 전자기 등 전자제품과 철판 등의 보호필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앞으로 이 기술을 활용,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고급시트와 보호테이프도 개발할 계획이다.

관지 공급과잉 해소 기대

동창제지 부도, 업계 판촉강화

최근 중소판지업체들은 동창제지의 부도로 다소 공급과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판지업계는 곧 주거은행과 몇몇 대형업체들이 동창제지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는 하겠지만 길게는 1년여동안 신규 물량은 나오지 않고 거래처도 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래 이같은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한편 신풍, 대한펄프, 한창제지도 이번 기회에 판지 재검받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동창의 향방 등 판도변화를 예상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환경대응 골판지 팰리트 개발

제일퍼펙트, 방수성 우수

주식회사 제일퍼펙트(대표이사 한석창)가 그린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골판지 팰리트를 개발하여 시판에 나섰다.

제일이 개발한 골판지 팰리트는 편면 압축강도가 전면 적재량 10톤의 하중까지 견디며(목재판재 28mm 규격), 내수성 특수 강화골판지 DW5종(일명 3중골판지)을 사용하여 방수성이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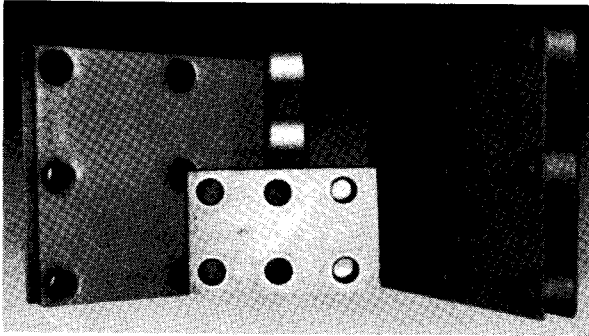
이 제품은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사에서 수출 물류기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최근 환경문제를 새로운 수입규제 수단으로 통상정책을 펴고 있는 EC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개발요청과 기술적 지원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골판지 팰리트는 통관절차시 소득이 필요하지 않으며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 효율이 높은 제품이다.

특히 1회용 수출품이란 점과 가격이 저렴하여 수거문제나 가격으로 인한 적용상의 문제를 해결했다.

제일의 골판지 팰리트는 자체 중량이 가볍고(목재의 1/5정도) 외관이 미려하며 화물운송비의 절감과 수출상품의 외관적 포장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제품의 형태 및 하중에 따라 규격과 형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지판, 지관, EGI강판으로 구성돼 있어 내수성의 강화(습기 및 물에 강함)로 찢어지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제일이 개발한 환경대응 골판지 팰리트

농산물 새포장재 개발

식품개발원, 식품 신선도 연장

과일과 채소 등의 신선도를 종래보다 0.5~2배이상 연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포장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농림수산부 산하 식품개발연구원은 최근 국산 천연 제올라이트를 섞어 제조한 플라스틱필름(N필름)을 개발, 과일과 채소를 포장한 결과 신선도 유지기간이 기존의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필름 포장법에 비해 최고 50%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식품개발연구원 포장연구실 박형우박사는 "새로 개발한 N 필름으로 상추를 포장한 결과 선도유지기간이 20일로 기존의 저밀도 폴리에스터 필름을 사용했을 때의 13일에 비해 53.8% 늘어났으며 ▲시금치는 22일에서 30일로 36.4% ▲감귤은 100일에서 130일로 30% ▲사과는 130일에서 170일로 30.8%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저장, 유통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져 절반 가까이 버리던 농산물 폐기량을 크게 줄이고 장기간 수송이 필요한 수출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로봇 랩핑기 시판

코팩, 스파이럴 방식

포장기자재를 보급하고 있는 코팩(대표 전진완)이 로봇 랩핑기를 도입하여 시판에 나섰다.

이태리 로보팍사 제품인 로봇 랩핑기는 포장방식이 기존의 턴테이블을 회전시켜 그 회전에 의해 팰리트를 필름포장하는 방식과는 달리 랩핑기 자체가 팰리트 주위를 돌면서 랩

핑을 해주는 것으로 포장형태는 스파이럴(나선형) 방식이다.

이 기계의 크기는 W740 × L1, 480 × H2, 200mm이며 중량 365kg, 시간당 포장능력 30Loads, Control Power DC 24V, 옵션으로 Power Pro-Stretch System(0~180% 연신가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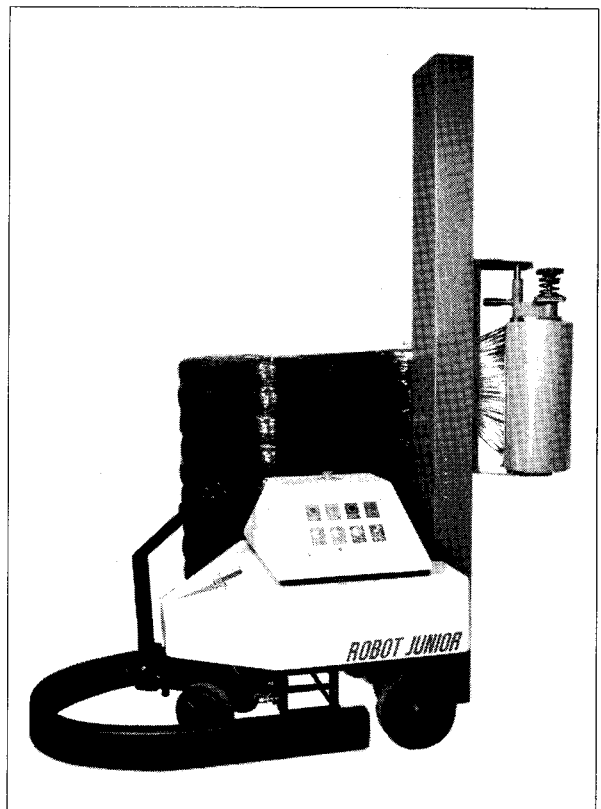
특징으로는 이동이 편리하여 실내·외 어디에서나 작업이 용이하고 기계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 재질을 사용했으며 보관이 편리하도록 제작됐다.

로봇 랩핑기는 기존 턴테이블 방식이 팔레타이징된 상태에서 턴테이블까지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던 것을 제거해 복잡한 공정을 줄임으로써 사용효과를 높였다.

또한 제품의 무게나 사양의 크기에 관계없이 랩핑이 가능하며 제품이 랩핑전의 이송도중이나 랩핑도중에 탈착될 염려가 있는 미끄러운 제품에 적합하다.

건전지로 작동되는 이 기계는 1회 충전으로 100~150팰리트를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편 코팩은 건전지를 국산화시켜 가격을 줄이고 사용상의 불편함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코팩이 시판하고 있는 로봇 랩핑기